

# 아궁이불로 지은 흰 쌀밥 같은 감칠 맛

〈겨레아동문학선집〉(전10권)을 읽고

채인선 · 아동문학가

지난해 어느 땐가 한 서점의 아동 코너에서 그림책을 훑어보다가 죽 늘어진 번역본 그림책에 떨기가 나 그 길로 서점을 나와버린 적이 있다. 서양 이름, 서양 풍경이 뒤섞인 회오리바람에 자꾸 휘청거려졌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하루 온종일 듣고 다녔을 때의 그 어지럼증,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외국 원서 속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의 노란 하늘, 바로 그 느낌이었다.

## 감칠맛 나는 민족의 이야기

겨레아동문학선집은 한 마디로 따끈한 밥 한 공기다. 책을 받아들이고 몇장 열어보니 어느 시골집 사랑방에서 흰 쌀로 지은 따끈한 밥 한 공기를 마추하고 있는 기분이다. 한 입 떠 넣으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정말 우리 밥맛이다. 아궁이에 불을 때 몽근한 불에서 뜸을 오래 들인 우리 밥이다.

겨레선집의 작품들이 흰 쌀밥인 것은 하나같이 문장이 깨끗해서다. 깨끗하면서도 감칠 맛이 있어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우러난다. 내용도 간결하고 무엇보다도 솔직하며 지름길로 독자를 이끌어간다. 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큼성큼 앞서 걷는 그 당당한 모습이 부러웠다.

작가 목록을 보면 새삼 낯익은 이름도 있다. 안희남·김유정·황순원·정지용·이태준·송영... 이들이 동화를 남겼다는 것은 이 선집을 통해 처음 알았다. 월북작가가 많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그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동화의 코드를 모색해 작품을 남겼다는 것이 내겐 더욱 미덥고 감격스럽다.

작품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직하게 그리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있고(방정환의 〈만년사쓰〉와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 등), 동·식물을 의인화하거나 다른 장치로 작가의 의도를 내비친 경우(주요한의 〈벼알 삼형제〉 등)도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끈 것은 당시 아이들의 자잘한 일상을 그리면서 잔잔한 즐거움을 담은 작품들인데, 나는 그것에서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는 유년동화의 전형을 보았다. 우효종의 〈어디만큼 왔나〉, 송창일의 〈베개 얘기〉, 김영수의 〈신동이가 된 할아버지〉 등을 카프케열의 문단이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진다.

그밖에 〈날개〉의 작가 이상이 쓴 〈황소와 도깨비〉는 황소 뱃속에 들어가 살을 잔뜩 찢어 나오는 도깨비 새끼 얘기인데 도대체 이상이 이런 전형적인 동화를 썼을까 의아스러울 정도로 재미난 동화였다. 딱 하나만 쓰지 말고 좀더 동화에 매진했다면 동화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뛰어난 작품이 나왔을 텐데 싶어 아쉽다. 겨레선집이 씌어진 때와 지금은 불과 백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어쩌면 이렇게 시는 모습이 달라졌을까. 어른인 나도 그 변화에 놀라 할 말을 잃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힌다

면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 이야기냐며 책을 덮고 말까봐 조마조마하다.

## 지금 읽어도 새로운 동화 · 동시 305편 수록

요즘 어린이는 정서가 메말랐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도 들었던 말이다. 오히려 메마른 것은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문학적 공간이 아닐까. 겨레선집이 아이들의 감성에 물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동화와는 다른 우물이지만 그 땅밑으로는 같은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안다.



겨레선집에 담긴 동화 128편과 동시 177편은 읽는이의 마음에 아픔을 전해준다.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삶이 된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 어떤 뿌리 같은 것이 돌아나 흠으로 뻗어가는 듯하다. 오랜 동안 찾아 헤맨

동화쓰기의 뿌리를 내릴 흠을 찾은 것이다. 끊어진 다리를 잇는 기분으로, 큰 공백을 다시 채우는 기분으로 선집을 가슴에 품는다. 뿌리내릴 흠을 찾은 우리 아동문단이 겨레선집과 더불어 풍요를 누리길 바라며, 글쓰는 사람으로서 다시 출발점에 선다. ◆

보리출판사/A5신/각 200면 내외/각 6000원

## 만년사쓰 방정환 지음

길벗어린이는 소과 방정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방정환 선생의 〈만년사쓰〉(김세현 그림)를 출간했다. 우리 문학사에서 잊혀진 작은 이야기나 소설·시·동요 등을 정감 어린 그림과 함께 소개하는 〈작가앨범〉 시리즈의 셋째권이다. 〈만년사쓰〉에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재치를 잃지 않는 낙천적인 마음을 가진,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 한창님이 20년대 학교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는 수목화풍의 그림 속에서 생생하다.



가난해서 속옷을 못입고 왔으면서도 맨몸을 '만년사쓰'라고 부르는 창남이는 다음날은 맨 가슴에 양복저고리, 헤져 뚫어진 한복바지, 맨발에 짚신을 신고 학교에 온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은 이웃에게 자신의 옷을 나눠주고 어머니에게 단벌 옷과 버선을 주고 왔다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옷과 버선이 두 개 있다는 창남이의 말만 믿는 것이다.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생계조차 잇기 어려웠던 그때만 할까. 그런데도 사람살이의 정은 더 팍팍해져만 간다. (322-6012) 길벗어린이/B5변형/36면/7500원

## 책 · 어린이 · 어른 폴 아자르 지음

어린이문학에 대한 길잡이 및 이론서를 출간해 온 시공주니어가 어린이문학의 기준을 세운 폴 아자르의 〈책 · 어린이 · 어른〉(햇살과나무꾼 옮김)을 펴냈다. 폴 아자르는 어린이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지닌 독립된 존재임을 전제하고, 좋은 어린이책은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놓은 책"이라고 주장한다. 교훈만을 강조하는 책에 대한 비판은 자못 통쾌하다.

"이제 막 인생의 회열에 눈뜨는 이들에게 잔인한 교훈의 비를 쏟아부리지 마라. 어린 영혼의 싹을 짓밟지 마라. 어린 영혼들을 일그러뜨



리는 까짜 읽을거리의 가치 없이 추방하라." 아무런 재미도, 꿈도 없는 교훈투성이 책은 '선을 가장한 악'이다. 아자르는 비교문학을 연구한 학자답게 유럽 여러 나라의 동화를 비교해 좋은 점을 취한다.

피노키오의 나라 이탈리아의 통통 튀는 상상력, 우주의 질서를 존중하려는 듯 리듬감이 뛰어난 영국의 자장가 등. 좋은 어린이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60년전 책에서 얻을 수 있다. (588-3121) 시공사/A5신/236면/8000원